

포체티노 감독 "알리에겐 호나우지뉴의 재능이 있어"

등록 2020.11.03 22:08:37



[런던=AP/뉴스시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이 애제자 델리 알리를 감쌌다. 2019.09.01.

[서울=뉴스시스] 안경남 기자 =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애제자였던 델레 알리를 감쌌다.

포체티노 감독은 3일(한국시간) 스키이스포츠를 통해 "마라도나보다 나은 선수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와 비슷한 재능을 보인 선수는 있었다. 과거 파리생제르맹에서 뛴 때 호나우지뉴가 그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를 처음 봤을 때 그에게 호나우지뉴와 같은 카리스마를 느꼈다. 마라도나와 호나우지뉴도 특별한 카리스마 덕분에 재능을 꽃피웠다. 알리에게도 그런 재능이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알리는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2015년 MK돈스에서 뛰던 알리는 포체티노의 눈에 띄어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고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알리는 에버턴과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왔다가 교체됐고 이후 교체로 1경기만 나왔다. 최근엔 유로파리그에 선발로 출전했지만, 부진 끝에 흑평만 받았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티넘은 알리를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그를 도우려 노력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알리는 아직 젊고 어린 선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 팀을 물색 중인 포체티노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파리생제르맹(프랑스) 등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